

특공 - 전쟁과 일본인

이형식 _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栗原俊雄, 『特攻 - 戦争と日本人』, 中公新書, 2015.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진주만 기습으로 파죽지세로 침략지를 확대해 나가던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 이후 연전연패를 거듭했다. 1944년 6월 마리아나 해전에서 패배하고, 7월 사이판이 함락되면서 B29에 의한 본토 폭격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전략적 요충지인 필리핀 방어를 앞둔 일본군은 제해권, 제공권을 상실한 최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적함선에 육탄공격을 하는 특별공격(자살공격)을 장병에게 지우기로 결정했다.

‘특공’을 둘러싼 논의는 강제적 동원인가 자발적 지원인가 하는 이항 대립적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는데, 본서는 특공의 기원에서 가미카제

특공대를 비롯한 다양한 특공대의 실패(전함, 뇌전, 기뢰, 보트 등), 살아 남은 사람들의 전후, 그리고 특공을 둘러싼 기억의 변천 등 특공대를 다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저자 구리하라 도시오(栗原俊雄)는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정치학연구과(석사수료)에서 일본정치사를 전공했다. 1996년 마이니치신문사 입사하여 현재는 동경 본사 학예부기자로 활약하고 있다. 시베리아 억류자, 전함야마토의 생존자, 태평양전쟁의 유족 등을 취재하면서 『시베리아 억류(シベリア抑留)』, 『전함야마토(戦艦大和)』, 『훈장(勲章)』, 『20세기 유적-제국의 기억을 걷는다(20世紀遺跡-帝国の記憶を歩く)』, 『유골-전몰자 310만 명의 전후사(遺骨-戦没者三一〇万人の戦後史)』 등의 저서를 통해 '대일본제국'이 감행한 전쟁에서 전쟁들을 통해 국가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되묻는 문제제기를 많이 한 저자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패전 70주년 시점에 출간한 이 책에서는 특공 생존자, 지휘관을 취재하고 다양한 사료를 통해서 '특공'에 대한 전체상을 그리고 있다. 저자는 저자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특공에 가지 않은 군 수뇌부들이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특공을 추진했다. 전선에서는 "나중에 자신도 간다"고 젊은이를 보내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휘관도 있다. 전후 "그것은 자발적인 지원이었다"고 주장하는 전 지휘관, 죽은 지휘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전 고급관료도 있다. 특공에 의한 전사자의 유체와 유골은 대부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이 모두 특공이다.

위 단락은 본서에서의 저자의 의도와 요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책은 일방적인 미화나 비판 일변도에서 벗어나 신화화된 '특공'을 한 꺼풀 걷어내 '특공'의 민낯을 드러냄으로써 독자

들을 ‘특공’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한다. 이 책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서장 ‘특공’은 무엇인가- ‘조직적 행동’ 前史

제1장 가마카제특별공격대

제2장 끝나지 않는 항공특공

제3장 전함, 뇌전, 기뢰, 보트 - 반복된 ‘기수’

제4장 전해 내려오는 70년- ‘특공’의 전후사

종장 21세기를 사는 특공

본서의 내용을 먼저 전체적으로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역사에서는 죽음을 각오한 작전이 종종 시도되었고,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수행한 대외침략전쟁에서 군과 미디어는 끊임없이 전쟁영웅, ‘군신’을 창출해 왔다. 특공은 멀리는 중세 南朝의 충신인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의 미나토가와 전투에서 근대에 들어서는 러일전쟁의 히로세 다케오(広瀬武夫), 만주사변의 ‘폭탄삼용사’, 진주만공격의 9군신 등이 ‘군신’으로 추앙되어 온 것에서 비롯되었다.

과거의 ‘군신’들이 수행한 작전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지, 작전 자체가 반드시 죽음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태평양전쟁 말기가 되면 상황은 급변한다. 1944년 10월 필리핀의 레이테 해전에서 일본군은 항공기의 엄호를 받지 못하는 일본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조직적인 특공작전을 감행했다. 육군과 해군은 레이테 해전 이전부터 자살특공공격을 조직적으로 검토했고, 특공용 무기(특공용 비행기, 인간어뢰 가이텐(回天), 인간폭탄 오카(櫻花) 등)를 제작했다. 명령에 의한 특공작전이 거행되어 미국 호위항공모함을 격침시키는 큰 전과를 거뒀다. 이 전과는 신

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군 상층부는 특공을 기정노선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미군의 대공방비가 갖추어지고, 항공기에 의한 요격태세가 정비됨에 따라 효과는 저하되었다(항공특공의 명중률: 진주만 58.5%, 필리핀 전선 27%, 오키나와전에서 패전 7.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특공전용의 항공기 인간폭탄 오카(해군), 잠수정 가이텐을 투입했다. 오카의 경우 제1진은 전멸하고 유일한 전과는 미국 구축함 1대를 격침시킨 것에 불과하였다. 미국은 이 오카를 가리켜 '바보(BAKA)'라고 불렀다고 한다. 가이텐의 경우 훈련 중에 15명이 사망하고 총 900명이 전사하였다. 특공은 전과보다도 출격 자체에 의미를 둔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전세는 만회되지 않고 패전까지 1년 남짓 사이에 항공특공만으로도 4,000명이 희생되었다.

전후 GHQ 점령시기에 '특공'에 대한 언급은 봉인되었다. 오키나와특공의 생존자 요시다 미쓰루(吉田滿)가 쓴 『전함야마토의 최후(戦艦大和の最期)』는 검열에 회부되어 발매금지가 되었다. 또한 '군인'들의 동상들은 철거되고 '특공떨거지'(特攻クズレ, 살아 돌아온 특공대원)에 대한 일본사회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그 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체결로 국제사회에 복귀한 1950년대 전반에 요시다의 책은 삭제 없이 출판되었지만 '전쟁공정', '군국주의 고취 문학'이라고 비판받았다고 한다.

196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과거를 되돌아 볼 여유를 갖게 되자 일본인들의 특공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였다. 전 항공참모이자 자위대 항공막료장이었던 겐다 미노루(源田實, 참의원의원)는 특공대원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죽어갔다고 미화하는 등 군기물 붐이 일어났다.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에서도 특공을 그린 작품들이 잇따라 제작되었다. 이런 매체들이 전후 일본세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전함야마토의 최후』는 스테디셀러가 되었고 '야마토'는 미디어에 의해 어린이용 상품으로 생

산되고 소비되었다.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우주전함 야마토'(1974~75년 방송)는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전후세대에게 '야마토'의 인기를 결정적으로 각인시켰다.

특공대의 출격지이자 영화의 무대가 되기도 한 가고시마의 치란(知蘭)은 21세기가 되자 정치가 고이즈미 준이로(小泉純一郎)의 영향으로 각광을 받았다. 고이즈미는 자민당총재선거에 앞서 치란을 방문하여 가미가제특별공격대를 총재선거전에 이용하는 등 '특공'은 현대정치와도 결부되었다. 전후 60년(2005년)을 기념하여 개관한 야마토박물관의 성공과 영화『남자들의 야마토(男たちの大和: YAMATO)』 흥행 등 야마토 붐으로 이어졌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이 책은 '특공'의 기원에서 실패, 전후의 기억 등 특공을 둘러싼 전체적인 논의와 실패가 다양하게 그려져 있다. 전문 학술서는 아니므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점을 몇 가지 소개하는 것으로 비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은 특공에 관한 '英靈史觀'을 경계하고자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英靈史觀'은 특공대원들의 숭고한 죽음이 있었기에 일본의 번영과 평화가 있었다고 특공을 미화하는 논의이다. 이 '英靈史觀'은 고이즈미 수상을 비롯한 우익성향의 정치인들의 특공관이었지만, 최근에는 일본의 우경화와 함께 대중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 '英靈史觀'은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특공작전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이 '英靈史觀'을 비판하고자 특공작전의 내실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있다. 특공을 지휘하고 살아남은 지휘관들은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패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특공전 사자의 1/3은 비희망자), 전함야마토처럼 출격명령 자체가 특공인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나아가 비행기 고장 등으로 살아 돌아온 군인들을 신부료(振武寮)에 격리수용하여 '살아 돌아온 반성문'을 쓰게 하고 폭

언과 구타를 일삼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고발하고 있다. 신화를 벗겨내 '특공의 민낯'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본서에서는 특공과 소화천황과의 관계를 아주 설득력 있게 그리고 있다. 레이테 해전에서 가미카제특공대의 육탄공격이 감행되었을 때, 저자는 소화천황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가”고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잘했다”고 전과를 평가함으로써 자살특공공격을 부추겼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화천황은 오키나와 전투에서도 항공부대만이 투입되는가라고 군령부장에 하문함으로써 일본이 자랑하는 전함야마토를 비롯한 '야마토함대' 10척을 항공기의 엄호를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게 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야마토함대'는 미군기의 집중적인 공습으로 2시간 전투에 4천명 전사했다. 이러한 참사를 보고받은 소화천황은 “바보같은 전투였다”고 평했다고 한다. 최근 「昭和天皇実録」이 공개되어 소화천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공작전에 대한 소화천황의 전쟁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공'에 관한 많은 연구와 저술이 있다. 2000년대 이후 가미카제특공대에 조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특공'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이 책만큼 이렇게 다양한 특공의 모습을 콤팩트하고 흥미롭게 그려낸 책은 없을 것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아주 잘 읽힌다는 것이다. 저자는 신문기자답게 생존자와 관계자를 취재하여 '특공'에 대한 다양한 역사상을 생생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대학원에서 일본정치사를 전공한 저자의 풍부한 지식이 기자의 취재력과 결합되어 대중서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고 특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으로 거듭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패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日本空襲